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인

고 산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이사



몇 년 전 온 국민의 열렬한 관심과 부러움 속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탄생한 슈퍼스타 2인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선망의 대상, 한국 최초의 우주인 고산과 이소연이었다. 국민적 관심과 인기로 치자면 밴쿠버의 모태범 이상화 선수 이상이라고나 할까.

러시아로 우주인 훈련을 받으러 갈 준비를 하면서도 대전시민 천문대를 찾아 별자리 훈련을 하던 모습이 꽤 인상적이던 대한민국 우주인 고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쪼개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원장님의 별자리 특별교육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가 아마추어천문가라는 사실 자체에 괜히 더욱 반갑고 친밀함이 느껴졌었다. 우주인이자 아마추어천문가로서 '우주에서의 별 관측' 기회가 미뤄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으로서가 아닌 아마추어천문가이자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이사이기도한 우주인 고산을 만나본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정책기획부 국제협력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주인 사업을 중심에서 체험하면서, 그리고 나로호 발사 등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과학기술정책에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책 쪽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서를 정책기획부로 옮겼습니다. 올 가을에는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로 유학을 떠날 예정입니다."

스타 연구원으로서 그 바쁜 와중에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공부를 하려 유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보통 인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마추어천문가로서 별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났다.

"별 보는 것은 물론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별과 우주는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는 대상이 아닐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밤하늘의 별자리를 찾아보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망원경을 빌려 처음으로 토성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신기 했어요! 대학교에 입학해서는 첫 학기에

천문학 강의를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별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찍었던 별 사진 달 사진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별을 좋아했고, 전공은 아니지만 서울대에서 천문학 수업까지 들었으니 그 때 이미 고수의 반열에 진입 했었던 것 같다. '준비된 우주인' 또는 '예정된 우주인'이라고 과장해도 될 것 같다.

"별과 우주를 좋아했던 게 아마도 우주인 선발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을 하게 된 원인이었겠죠. 저는 원래 우주인이 되는 게 꿈은 아니었습니다. 별과 우주를 동경하긴 했지만 로켓도 우주선도 인공위성도 없었던 나라에서 자라면서, 대한민국에서 우주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그건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우주인 선발 공고가 나타난 겁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바로 지원했습니다. 우주인에 꼭 뽑힐 거라고 믿고 지원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엔 그야말로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발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일(복싱, 고산등반 등)들이 점수를 많이 받았고, 또 그 당시 제가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런 면들이 우리나라 과학우주인 컨셉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별과 우주를 좋아하고 이공계 수재 코스를 밟고 있는 연구원이 복싱과 고산등반이라는 강인한 체력에 모험심까지 갖추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우주에 혼자 떨어져서도 살아남을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인물. 대한민국 5천만분의 2로 선발 되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었다. 그가 이제 아마추어 천문학회 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이사직을 맡겨주셨는데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아마추어 천문학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아마추어 천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저를 뽑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아마추어 천문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좋아하고 복싱과 고산등반을 즐기는 고산은 서울대 수학과를 거쳐 대학원에서는 '인지과학 협동과정'을 전공했다.

"어렸을 적엔 자연과학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수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연과학이외에도 철학 심리학 등 다른 학문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포괄해 줄 수 있는 학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지과학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관한 학문입니다. 인공지능과 유사하다고 생각

하시면 되지만, 인지과학은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사고과정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한 학문이 아니라 보다 자아성찰의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인이 우주로 탐험을 떠나는 모험가라면 인지과학자는 인간의 내면세계로 탐험을 떠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또 '공공정책'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떠난다고 한다.

"과학기술정책분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주인 사업에 참여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미래 국가경쟁력인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가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연구원이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이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나름대로 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공부도 더하고 길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별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던 과학도에서 과학기술연구원, 대한민국 우주인을 거쳐 이제는 과학한국의 미래를 직접 개척해 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안고 떠나는 입지전적인 도전자의 목표에서 선진 과학한국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